

이렇게 들었다

문화유산의 수난

“무모한 행위 뒤엔 불행”

남의 권리를 유린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제 지위를 과장해 비행을 합리화하고, 궤변으로 남을 속이고 비방하는 것은 악행이다.

〈무량수경 하권〉

우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악(惡)을 없앤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바세계경〉

종교는 문화를 꽃피우지만 한편으로 문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불상 파괴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편협한 믿음이 광신적으로 변해 다른 종교의 유산을 고의적으로 없애는 이른바 반달리즘(Vandalism·예술 문화 파괴 행위)으로까지 번진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미 비이슬람적 고대 불상 수천 개를 파괴했다. 특히 수도 카불 서쪽에 위치한 바미안 대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부서져 버렸다. 바미안 주민들은 “탈레반 병사들이 이들 불상을 향해 방공 무기들을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문화적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 만행을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자신의 믿음에 맹목적인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종교적 이윤이나 통치 이념, 기타 여러 가지 명분 아래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기독교도들이 이집트 조상을 이교도의 상징이라며 송구명을 막기 위해 코를 깨뜨린 것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시를 파괴한 것까지 그 예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두브로니크시를 파괴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된 시점에서 탈레반이 간다라 미술의 조각이라는 바미안의 문화 유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는 대목은, 종교나 이념의 배타성에 다시 한번 우려와 경계심을 고조시킨다.

과연 반달리즘으로 얻는 게 무엇인가. 상대방을 부정하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 상권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람이 제멋대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 뒤에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탈레반은 불상을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반하는 우상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본위의 생각일 뿐이다. 불상은 우상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은 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쌍고경〉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자는 우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탈레반 정권에 들려주고 싶은 때이다.

오종욱 기자

왜 교육이민을 꿈꾸는가

불자 세상보기

왜 대대로 살아온 자기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가? 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육이민을 가고자 하는가? 아무리 지금의 시대가 국제화의 시대이고 전 세계가 한 동네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이민을 결정하기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1999년에는 1만2천여 명이, 2000년에는 1만5천여 명이,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지 않을 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의 어려움이 가는 자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에게는 자괴감을 넘어 참담함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 민족은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많은 부와 큰 명예를 이루었다 해도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다면 매우 허전해 한다. 보다 자식을 잘 키워사는 보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에 크게 비판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책임이 있을 것인데 보다 근원적이고 큰 책임은 학교 외적인 곳에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서정주 시인의 시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가 암시하듯 오늘날 우리의 이민열풍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교육적 가치’마저 정치적 논리로 보니 교육도 정치도 후퇴

들로 “지금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혼란스러운 교육제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사회의 무규범성 때문에” “정치적 혼란과 고립” 등을 든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측면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어 학교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신을 가다듬

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교원이거나 학교도 스스로를 지키고 가다듬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육은 제법 인정을 받았다.

정치·경제 법(규범)·교육 등 여러 사회분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체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법(규범)·교육 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치가 이들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입김이 너무 세다. 정치가 경제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정치에는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을 위한 기준도 없다. 있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른 흑백 고집뿐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학생



신준식

대구대 사회학 교수

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정치적 신뢰에서, 정치의 모습에서, 그리고 국민적 기본의무에 있어 좋은 본이 되어야 하다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교육정책이 진정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교육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집단의 즉흥적인 생각을 제도화하고 합리화하는 행정이었고 또한 교육개혁이 행정편리를 확장하기 위한 행정이었다. 정치와 교육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은 있을 수 없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민이나 교육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나라의 장래 또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중앙승가대 발전방향

“지행합일 교육프로 시급”

현각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중앙승가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 교육법에 기본교육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 기초선원의 교육이 중점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승가대를 졸업한 학원이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에 다시 입학하거나, 거꾸로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에 졸업하고 지방승가대로 입학하는 것은 대단히 낭비적인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불교학의 토대 위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선 중앙승가대가 승가의 전통적인 수행가풍을 확립하고 신심을 증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유분방함 속에서 세속화가 가속화돼 승가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도 없어야 한다.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는 교과목의 이수도와 직결된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상담 등 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배출할 것이라고 한다.

침체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적 토대 확보도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의 발전이 종단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불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지난 95년에 중앙승가대 학원과 동원을 대상으로 중앙승가대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앙승가대학의 성격을 방편적 지식교육기관으로 꼽은 경우가 많았고, 이미지와 재정상태 평가에서는 나쁘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중앙승가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현각스님

김포화사시대를 맞은 중앙승가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학원관리위원회 주최로 6일 총무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단교육체계 정비, 대학원 설립, 재정확보 등 중앙승가대개교 20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중앙승가대의 위상과 역할’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한 종단차원의 과제’를 주제로 한 현각스님(조계종 종회의원)과 홍선스님(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의 발제문과 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환경개선 대책 절실”

홍선스님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중앙승가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전통적인 강원교육과 현대적인 승가교육의 혼선을 빚고 있는 종단 승가교육체계,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운영관리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생되고 있다. 강원을 마치고 중앙승가대에 진학해 교육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무기력증을 낳는 요인이 시정돼야 한다. 또 종단의 정치적 변화에 의해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입학에서 교육, 그리고 졸업후의 진로 등에 이르기까지 종단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원과 산하 교육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상호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승가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가의 사회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교육, 복지, 사회봉사 등에서 스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교육자, 역경사, 포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지방승가대의 구별되는 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가교육체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승가교육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도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의 자체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부족한 교수인력을 충원하고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종학연구소 설립하고 기존의 연구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안암학사를 대학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홍선스님

토론

“불교연구-인재양성 도량”

계성(교육원 교육부장)-중앙승가대는 단순히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단의 교육과 연수를 포함한 연구와 인재양성의 도량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수의 채용과 교과과정 쇄신, 피교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재정 확충, 연구 및 수행기능 강화 등 장기적인 준비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종단은 기초, 기본, 전문, 특수 교육에서 30여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교육재정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자 부담원칙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종단차원 교육체계 정립”

정범(종립학원관리위원)-중앙승가대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우선순위로 종단차원에서의 교육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안이 마련되었더라면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화, 다양화되어야 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현재의 승가교육으로 미래를 담당할 새로운 승가교육 확립이 가능하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심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기본교육기관에서 가능하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설립은 그 취지는 옳으나 중앙승가대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종단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승가대 정체성 찾기”

본각(중앙승가대 교수)-현재의 승가교육은 강원, 대학, 선원, 학림, 대학원 등 다양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종단 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승가대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승가교육의 답습차원에서 기존 강원교육의 내전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수행관 생활 속에서 염불, 좌선 등 승의교육을 시행해 졸업과 동시에 수행인으로서의 능력과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컴퓨터, 외국어, 복지학, 카운셀링 등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선지식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일망울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자였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
기업은행 정문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 다수,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2001. 1. 1
21세기의 길은 열렸다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갈은 나간다.
동행이 아닌 계절에
21세기 무량반을
찾아 나간다.

길따라

시의 칼럼 보덕현호 선사

마음따라

A5신 112쪽
값 4,500원
※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정희의 빛 - 값 4,500원
고향의 숲길 - 값 4,500원
사랑과 비람의 시 - 값 4,500원
해 탈 - 값 5,000원
달아를 보라 - 값 5,000원
마음의 창 - 값 7,200원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 867-4000
F. 041) 867-4001

☎ 통일정화사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금주 : 최종웅
금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순수한 정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거머쥔 세진년식대 등의 꿈을 꾸세요”

수직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용린(眞本대사)
그림, 佛자그림(수
액과 청안) 특별보시!

2000년 대종명상
수행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채화 전시연회
인원 100% 호적

목사님 및 사용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대안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www.korea-art-gallery.org
(korea art gallery)

사업실제, 가정문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팩 307077-51-031273 운장사

덕화산 돌탑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